

사설

불교계 일깨우는 '큰 빛'

불교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답은, 출가 공동체의 청정성과 화합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정성과 화합성을 이루는 근본은 무엇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그 공동체를 이루는 스님 개인 개인의 수행력과 청정한 계행이다. 요즈음처럼 한국 불교 종단의 청정성과 화합성이 내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더 더욱 스님들의 청정한 계행과 치열한 수행에 대한 아쉬움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즈음에 접한 원산스님의 무문관 출판 소식은 오랜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조계종 초대 교육원장을 지내시며, 승가의 본분을 강조하셨던 원산스님이다. 그 분이 당신의 말을 무문관 입관으로 실천하신 것 자체가 우리 불교계의 저력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하루 한끼의 식사, 일체 외세의 접촉을 끊고 오로지 깨달음의 외길을 추구하는 그 치열한 과정의 3년을 마치시고 출판하시는 원산스님은 또 다시

우리 불교계를 일깨우는 빛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분의 수행 공덕이 우리 불교계를 새롭게 할 것이다. 아니 그분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또 다시 침묵에 들어가신다 해도, 그런 스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인 것이다.

수많은 스님들이 말없는 가운데 치열한 수행의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원산 스님과 같은 분은 소임을 그만두고 바로 무문관에 입관하셔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예일 것이다. 해마다 하얀거 동안거에 입제하는 스님들의 수가 늘어나 안거할 선방을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우리 승가가 외적인 혼란 속에서도 그 수행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것이 아마도 한국 불교를 일으켜 세울 원동력이다. 원산 스님은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큰 모범으로서 불교계 뿐만 아니라 오욕락의 추구에 민연된 현대사회에 새로운 빛을 던지는 귀감이다.

원산스님의 장하신 수행이 우리 불교계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불교계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포교사단 출범 1년

포교사단이 11월 1주년에 즈음해 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포교사들의 자세를 다들었다. 국민들의 불교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에 부응하는 방안을 함께 찾는 진지한 자리였다.

포교사는 조계종에서 80년대 초부터 배출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2500여 명의 포교사들을 배출했다. 그러나 그동안 조계종단은 배출만했지, 지원은 물론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다행히 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 포교사들을 고급인력으로 보기 시작해 지원과 관리 방안을 찾았다.

포교사들은 최일선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전하는 중차대한 소임을 수행하는 소임자들이다.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군대와 교도소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의 분야로 나눠 포교인력을 배치하는 등 포교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포교팀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불교 안에서는 몇 안 되는 자생적이고 독립성을 지닌 단체로서 이후 불교

를 널리 펼치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차제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 스님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교구본사와 무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골치 많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구본사와 포교사단은 경쟁관계가 아니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가 온전해야 한다.

둘째, 자발성을 높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자발성은 스스로의 사명감을 자각하는 데서 나온다. 많은 단체가 생겨났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발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조직의 공동체성을 높여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포교사단은 포교사들만의 모임이 아닌, 불교계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현재 불교계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성공의 사례를 내오고, 이를 함께 나눠주는 것이다. 포교사단이 이 일을 해주길 바란다.

신계사 복원 발원법회

北 승인 4일 봉행...조계종 "연내 착공 내년 회향"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기원하는 법회가 4일 현지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스님과 전 종회의장 종하스님,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참석한 신계사 복원 기원법회는 북측이 승인해 금강산 지역에서 열린 공식행사로서는 처음으로, 참석자들은 민족의 화합과 친선고찰인 신계사가 이른 시일내에 복원되기를 발원했다.

이날 법회는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의 사회로 신계사 대웅전에 전통 불교 의례를 위한 식단을 차려놓고 삼귀의·반야심경 봉독·현봉스님의 인사말과 이번 법회를 후원한 현대아산(주) 김고종 부사장의 축사, 성수스님의 법어, 종하스님의 축원, 탑돌이 등의 순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성수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법회에서 대중들이 세운 서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험담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도둑 정진하라"고 강조하고 "신계사 복원을 위해 분발정진한다면 세계 제일의 도량이 될 것"이라며 대중들의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현봉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신계사 복원 기원법회를 인연으로 남과 북이 화합하여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우리 민족이 융성하여 한반도가 복된 북극토가 되기를 기원하자"고 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올해 안에 복원불사를 착공해 내



신계사 복원 기원법회에 참석한 150여명의 사부대중들은 신계사의 조속한 복원을 발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년에 회향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부장 양산스님은 "신계사 복원에 대해 북측과 합의를 이룬 상태"라며 "멀지 않은 시기에 복원불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44년 신계사 산내암자인 법

'선학원 정상화' 초안 수립

정관개정·분담금 등 6개 합의문 전달

조계종 법인대책특위

조계종 중앙종회 내 법인대책특별위원회(법인특위, 위원장 혜창)는 5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선학원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

법인특위는 곧 합의문 초안을 선학원에 보내는 한편 선학원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선학원측이 정관 명칭을 지금의 '재단법인 선학원'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6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문 초안은 다음과 같다.

선학원은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한다. 명칭을 재단법인 선학

원에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으로 개정, 목적 조항에 '대한불교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를 삽입, 인원 조항에 '인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중 역량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 선학원은 현행 조계종 종회의 제규정을 존중하여 향후 일체의 신규사찰을 등록받지 아니 한다.

△분담금납부 의무 등을 이행한다. △선학원 소속 승려에 대한 일체의 권리 제한 조치를 해제하며, 선학원의 인사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의 고유 권한을 일체 침해하지 아니 한다. 법인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법과 관련, 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성운 기자

"신도등록 포교원 환원"

조계종 본사주지회의 요청

조계종의 신도등록 업무가 다시 포교원으로 환원된다. 교구본사주지들은 7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신도등록 사업을 포교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며 포교원으로 환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교부장 상운스님은 "신도등록 업무의 본사 이관을 보류하고 신도법을 개정해 다시 포교원에서 맡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본사주지회의에서는 또 관람로 사찰에 사역(寺域) 지도를 설치해 등산로 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과 포교원은 사찰 오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의 수립, 신도 기본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태고종 분규 '해법' 고심

종연스님, 운산·법장스님 만나 수습 논의

태고종 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물밑 회동이 찾아지고 있다. 총무원장 종연스님은 7일 운산스님(현종사 주지)을 만난 데 이어 8일에도 모처에서 법장스님을 만나 사태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분규를 하루속히 끝내기 위한 원만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원론에는 양측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운산스님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태고종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총무원장과 관련된 모든 행보를 집값"이라고 밝혔다. "다음 임시총회가 열리더라도 원장후보로 나오지 않겠다"고 전제한 스님은 "종연스님도 같이 물러나고 제3의

인물이 나와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종연스님과 함께 공개토론회를 가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근현대사·법백 재조명

'태고종사' 나온다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정리하고 법백을 재조명할 '태고종사'의 발간이 가시화되고 있다. 태고종사간행 준비위원회(위원장 수열)는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국배판 320쪽(원고지 2,500여 매) 분량의 종단사 가제본판을 완성했다.

간행준비위는 가제본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완성본을 펴낼 계획이다.

이경숙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더 가다듬게...

조계종 5월 이후 발족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사이트 관리와 인터넷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포교사단, 대불청, 대불원, 파라미터 회원들을 중심으로 (가칭) '인터넷포교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한다.

포교원은 각 단체별로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50여명의 인원을 모아 초파일 이후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

인터넷포교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각 지역별 포교소식 및 정보자료 수집과 사이트 모니터링에 나서게 되며, 사찰 정보화 사업 지원, 포교원 홈페이지의 분야별 시삽 역할도 하게 된다. 김재경 기자

"불상파괴 중단 하라"

국제사회 탈레반 비난 거세

세계 최대 마에블린 바미안 석불 등 불상 파괴에 나선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원리주의 정권 탈레반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항의가 거세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는 5일 수천 명의 승려들이 탈레반 정권의 불상 파괴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 네팔에서도 불교 및 힌두교 신자 수천 명이 수도 카트만두에 모여 탈레반의

불상 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불교국가인 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불상파괴 중지를 요청했으며 유네스코는 이슬람연합기구에 "탈레반 정권이 불상파괴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바미안 석불은 8일 현재 머리 부분에 큰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형진 기자

불자들에게 드리는 글

「영계 리포트」와 관련하여 본의아니게 부처님과 불법(佛法) 그리고 그 제자들로 구성된 삼보(三寶)의 위엄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솔직하게 그 사실을 해명하고자 합니다.

세계일보사에는 별개의 독립법인체인 외간담당 자회사 「세계일보 제작단」이 있습니다. 그간 주간지나 월간지 혹은 단행본 등의 인쇄물을 수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자회사는 비단 세계일보의 간행물만이 아니라 각종 단체와 기업의 인쇄물은 물론 일반 광고인쇄물도 주문 받아 인쇄 배포하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된 「영계리포트」 역시 자회사인 제작단이 수주해서 인쇄 배포 했습니다. 이 경우는 특히 의뢰처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소속원이라서 광고용 삽지형태의 타블로이드판으로 인쇄해주었고, 같은 자회사인 발송용역회사에 의뢰해 세계일보 보급망을 이용해 일부지역에 배포했습니다. 리포터 김영순씨는 전에도 개인적으로 게시내용을 출판사에 의뢰해 간행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주변인물들이 자회사를 이용해 제작 배포했습니다. 자회사 제작단 역시 인쇄물의 주문 제작이 영업인만큼 특별한 검토 없이 제작배포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점이 자회사의 불찰이었습니다.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여 주문자에게 시정토록 했어야 했는데 불

구하고 제작배포한 것입니다. 또한 그 「영계리포트」 첫장 상단에 「세계일보사 발행」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의뢰자측이 이미 편집해온 것을 자회사 제작단이 내용의 검토없이 그대로 인쇄하고만 것입니다.

세계일보 제작단이 그런 실수로 뜻밖에 불자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같은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주문받은 인쇄물의 내용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일로 그간 다져져왔던 교단과 불자들과의 각별한 관계가 손상되는 일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일보의 대주주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전세계적으로 종교간의 화해와 연합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종교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오랫동안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교종단이나 불자들과는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신문은 불교를 폄하 보도한 적이 없었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께 잠시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다시 한번 사과하며, 부처님의 자비(慈悲)와 지혜(智慧)가 온누리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2001년 3월 9일 세계일보사 사장 송병준